

현안과 과제

■ 위안화 국제화 여건 점검과 시사점
- SDR 가입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목 차

■ 위안화 국제화 여건 점검과 시사점

- SDR 가입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위안화 국제화 여건 점검	3
3. 중국, SDR 편입이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9
4. 시사점	10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중 국 경 제 팀 : 한 재 진 연 구 위 원 (2072-6225, hzz72@hri.co.kr)

Executive Summary

□ 위안화 국제화 여건 점검과 시사점

■ 개 요

중국 위안화는 다가오는 10월 1일 SDR 편입을 앞두고 있다. SDR 바스켓 구성비율은 위안화가 10.9%로 미국 달러와 유로화를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기축통화의 지위를 얻게 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내외 불안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다소 지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화 여건 점검을 통해 세계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위안화 국제화 여건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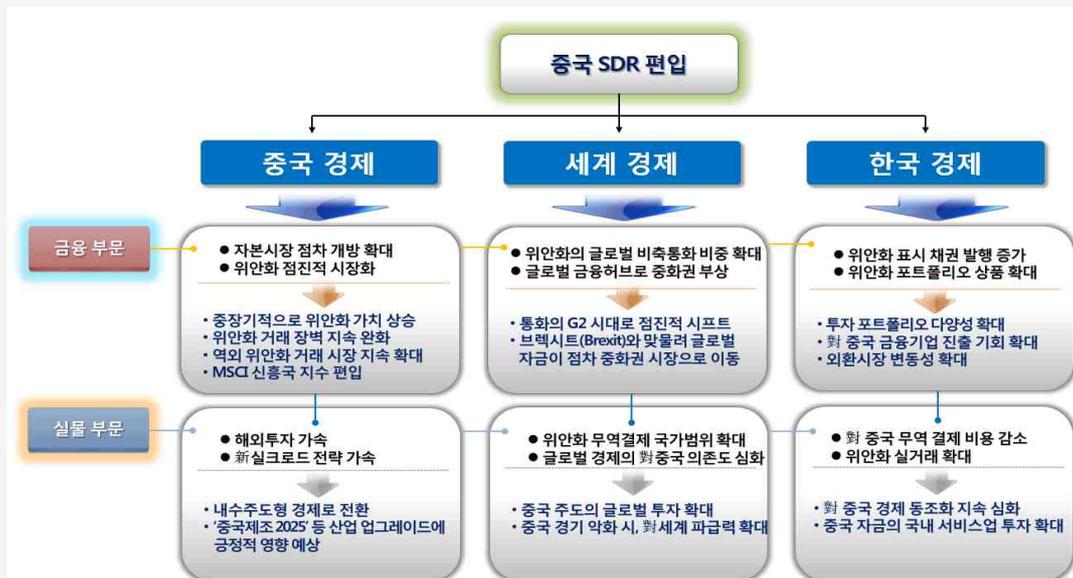
① **중국의 경제규모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 GDP 중 중국 비중이 위안화의 국제화를 시작한 2009년 8.6%에서 2015년 15.0%로 상승하면서 EU와 대등한 수준으로 부상했다. 또한, 글로벌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9.6%에서 2015년 13.8%를 기록하면서 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상승했다. ② **위안화 환율시스템 시장화도 진전되고 있다.** 중국은 2005년부터 시행해 왔던 관리변동환율제도를 개혁하여 2012년부터는 위안화의 달러대비 환율 변동폭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15년 8월에는 기준 환율의 고시방식을 외환수급, 주요통화 환율 등 시장수급을 반영하는 시장환율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환율과 기준환율 간의 괴리가 축소되고는 있으나, 최근 경기둔화로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③ **위안화 결제 수요가 다소 정체되고 있다.** 중국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2009년 4/4분기 36억 위안에서 2015년 3/4분기 2조 890억 위안으로 빠르게 확대되다가 최근에는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수출입 총액 대비 무역결제 비중도 동기간 0.08%에서 32.2%로 급증했으나 그 뒤로는 3분기 연속 감소 추세이다. 한편, 2015년 이후 중국 위안화는 세계 5대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했으나 수출입 결제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④ **자본시장 개방화도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중국은 본토내 외국인의 위안화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 개방화 진전은 있지만, 자본시장 개방 측면에서 다른 통화국들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 본토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은 2013년 말 각각 3,450억 위안, 3,990억 위안에서 2015년에는 각각 5,990억 위안, 8,520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동기간 위안화 대출 및 예금 자산 금액도 각각 1.6배, 1.0배씩 증가했다. 하지만, 자본개방도는 미국 294%, 일본 282%, 한국 12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약 68% 수준에 머물러 있다. ⑤ **세계 외환거래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는 확대되고 있으나, 브렉시트로 거래 환경 약화가 우려된다.** 2016년 4월 현재, 세계 장외시장에서 위안화의 실물거래(Spot Transactions), 선물환(Outright forwards), 외환스왑(Foreign Exchange Swaps) 등 거래는 각각 680억 달러, 280억 달러, 860억 달러로 2013년보다 확대됐다. 또한, 세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일일 평균 거래 비중도 3년 2.2%에서 2016년 4.0%로 상승

하는 등 세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가 미약하나마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위안화 역외거래센터 확대와 같은 위안화 역외거래 여건 개선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위안화 SDR 편입이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도 다소 느려지고 있으나, 위안화 SDR 편입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여건은 지속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중국경제는 자본시장 개방 등 금융시장 개선 효과 뿐 아니라,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 등에 따른 실물경제의 질적 개선에도 긍정적인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경제는 위안화 수요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력 상승이 예상되나, 對 중국 무역 및 금융 결제 확대로 對 중국 의존도 심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 중국의 SDR 편입과 세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시사점

향후 중국 위안화가 SDR 편입으로 정체되었던 위안화의 국제화 여건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SDR 편입으로 국내에서도 결제통화 및 투자, 비축통화로서의 위안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외 위안화 금융센터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둘째, 위안화 상품 개발 확대를 통해 국내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한중간 위안화 수요 확대에 따른 금융 및 통상 분야에서의 변화에 맞는 상호 협력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원-위안 직거래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리스크 전이 가능성도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1. 개요

○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이 10월 1일로 임박해 오는 가운데, 최근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는 다소 정체되는 양상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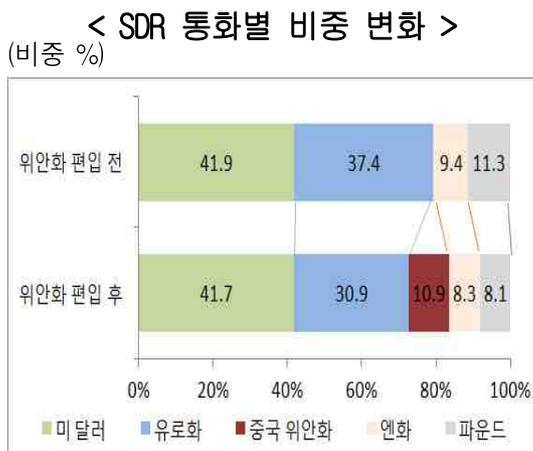
- 위안화 SDR 편입 임박

- 2015년 11월 30일, IMF 이사회는 중국 위안화 SDR 편입 결정되면서 SDR 편입통화가 기존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 엔화 등 4개 통화에서 중국 위안화 추가로 5개 통화로 늘어남
- 현재 SDR 바스켓 구성비율은 미 달러 41.9%, 유로화 37.4%, 엔화 9.4%, 파운드 11.3%로 구성
- 위안화의 SDR 편입의 실제 발효시기인 2016년 10월 1일 부터 SDR 바스켓 구성비율은 미 달러 41.7%, 유로화 30.9%, 위안화 10.9%, 엔화 8.3%, 파운드 8.1%로 변경되면서 위안화가 3대 기축 통화로 부상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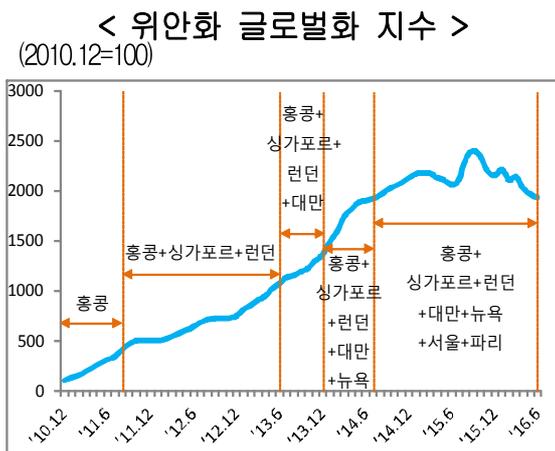
- 다만, 최근 중국 경기 둔화 등 대내외 불안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다소 지연되는 양상을 보임

- 위안화의 국제화 수준으로 표시하는 위안화 글로벌화 지수(2010.12=100)는 2015년 10월까지 지속 상승했으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체되는 양상을 보임

○ 이에 중국의 국제화 여건 점검을 통해 세계 및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자료 : IMF, Review of the Special Drawing Right(SDR) Currency basket, April 6, 2016.



자료 : Bloomberg, Standard Chartered.
주 1) 역외 위안화 시장내 예금, 무역결제, 담보본드 발행 등 현황을 지수화해 위안화글로벌화 지수를 발표.
2) '11.8월 싱가포르, 런던, '13.7월 대만, '14.1월 뉴욕, '14.8월 파리와 서울 순으로 포함.

○ IMF SDR의 의미와 주요 참가국

- (정의)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SDR, 이하 SDR)은 일종의 '가상통화'임
 - SDR은 1969년 IMF에서 도입한 국제준비자산으로 IMF 회원국의 공식 준비자산인 금과 미국 달러화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됨
 -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없이 미국 달러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을 인출할 수 있는 잠재적 청구권임
- (가치 산정) SDR 가치는 현재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4개국 통화로 산정됨
 - 발행잔액 2,041억 SDRs의 가치는 미국 달러화로 2,850억 달러임(2016년 3월 기준)
 - SDR 통화바스켓은 IMF 이사회에서 5년 마다 검토되며 현재 통화별 비중은 달러화 41.9%, 유로화 37.4%, 파운드화 11.3%, 엔화 9.4%임
 - 이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중과 외환보유액에서 차지하는 통화별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한 것임
- (할당) IMF는 회원국별 쿼터에 비례하여 SDR을 할당하며, 한국은 186개국 가운데 20번째인 33억 달러(1.2%)임
 - 미국 492억 달러(17.3%), 일본 171억 달러(6.0%), 독일 168억 달러(5.9%), 프랑스 141억 달러(5.0%), 영국 141억 달러(5.0%), 중국 97억 달러(3.4%) 순임

< SDR 할당 상위 6개국 >

국가	백만 SDRs	백만 달러	비중
미국	35,316	49,242	17.3%
일본	12,285	17,129	6.0%
독일	12,059	16,815	5.9%
프랑스	10,134	14,131	5.0%
영국	10,134	14,131	5.0%
중국	6,990	9,746	3.4%

자료 : IMF 참고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 2016년 8월 31일 기준 1 SDR은 1.394340 달러.

2. 위안화 국제화 여건 점검

① 경제 규모 확대 가속

○ 중국은 2009년 위안화 국제화를 시작한 시기보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및 수출 비중이 빠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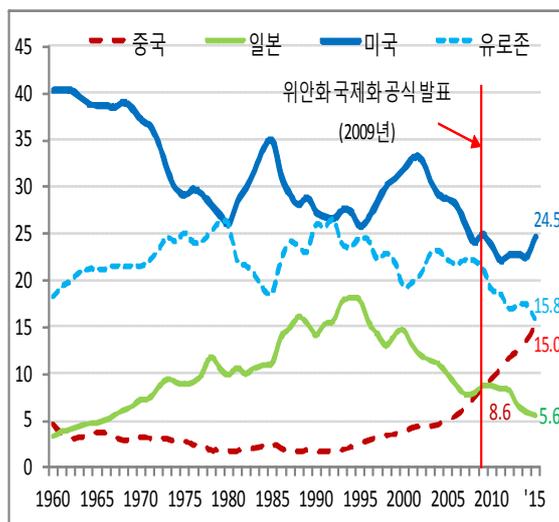
- 세계 GDP 대비 중국 GDP 비중이 빠르게 상승

- 세계 GDP 중 중국 비중은 위안화의 국제화를 시작한 2009년 8.6%에서 2015년 15.0%로 6.4%p 상승, EU와 대등한 수준으로 부상
- 한편, 동기준 미국, 일본은 2009년 각각 24.8%, 8.7%에서 2015년 각각 24.5%, 5.6%로 점차 감소

- 수출비중도 중국이 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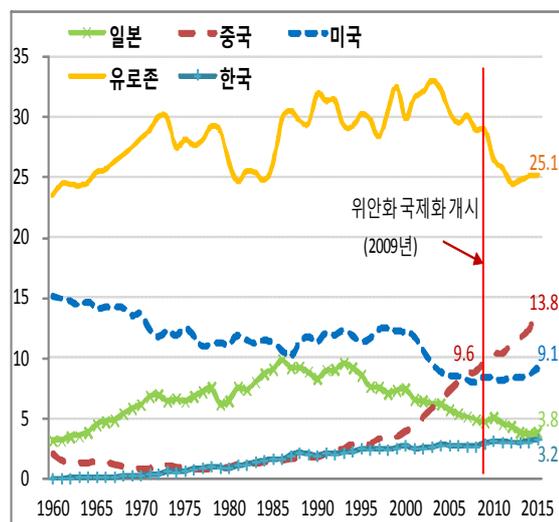
- 세계 수출총액 대비 중국의 수출비중은 2009년 9.6%에서 2015년 13.8%로 4.2%p 상승하는 등 단일국가로는 세계 최대 수준
- 미국도 동기준 8.4%에서 9.1%로 소폭 상승했으나, 일본은 동기준 4.6%에서 3.8%로 감소세를 보임

< 세계 GDP 중 주요국의 GDP 비중 >
(비중 %)



자료 : UN data, IMF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 세계 수출 중 주요국의 수출 비중 >
(비중 %)



자료 : WTO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상품수출 기준.

② 환율 시스템 시장화 진전

○ 최근 중국은 환율 변동폭 확대, 고시제도 도입 등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 조치를 가속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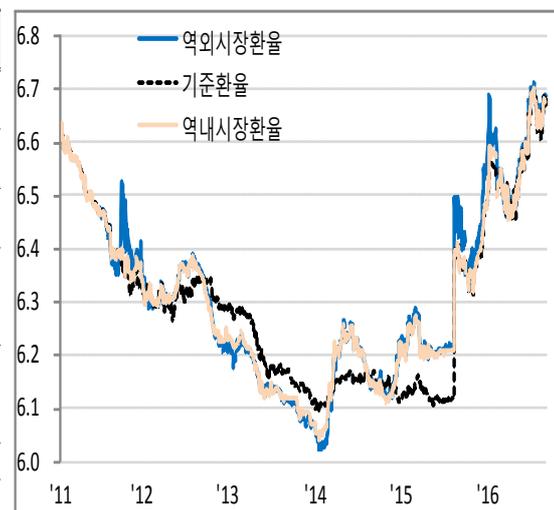
- 2015년부터 기준 환율의 고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율 시장화 조치 가속
 - 중국은 2005년 7월 환율시스템을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하는 등 환율 시스템의 개혁 단행
 - 2012년부터는 달러 대비 위안 일일 환율 변동폭을 $\pm 0.5\%$ 에서 $\pm 1.0\%$ 로 확대한 데 이어 2014년에는 동기준 $\pm 1.0\%$ 에서 $\pm 2.0\%$ 로 재차 확대
 - 한편, 2015년 8월에는 기준 환율의 고시방식을 외환수급, 주요통화 환율 등 시장수급을 반영하는 시장환율 시스템을 시도
- 이에 따라 시장환율과 기준환율간의 괴리가 축소되나, 최근 평가절하가 지속되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
 - 기준환율과 역외시장환율 간의 격차가 2015년 2월 평균 달러 당 0.13위안까지 확대되었으나 2015년 11월 평균 달러 당 0.03위안으로 축소
 - 또한 기준환율과 역내시장 환율 간의 격차가 동기간 달러 당 0.12위안에서 0.00위안으로 축소되는 등 환율의 시장화가 진행

< 중국의 환율 시장화 정책 과정 >

구분	개방 정책
2005	· 7월: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2008	· 7월: 고정환율제로 복귀
2010	· 6월: 관리변동환율제 재시행
2012	· 4월: 달러대비 위안 일일 변동폭 $\pm 0.5\% \rightarrow \pm 1.0\%$ 로 확대
2014	· 3월: 달러대비 위안화 일일 변동폭 $\pm 1.0\% \rightarrow \pm 2.0\%$ 로 확대
2015	· 8월: 기준 환율의 고시제도 도입
2020	· 완전변동환율제 도입 목표

자료 : 중국인민은행 자료로 현경연 정리.

< 위안/달러 기준 환율과 시장 환율 >
(위안/달러)



자료 : CEIC.
주 : 일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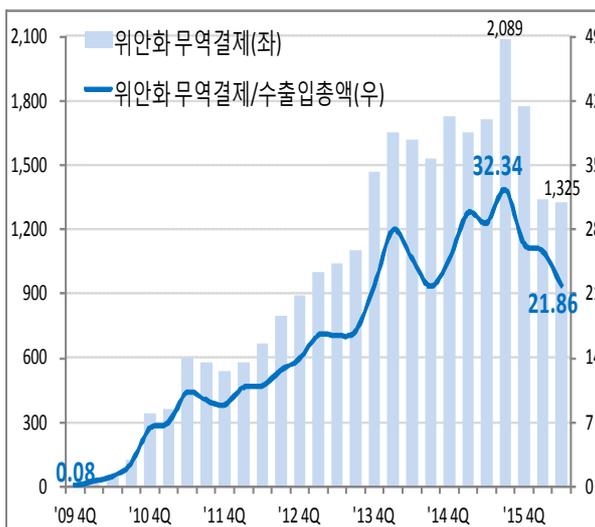
③ 위안화 결제 수요 다소 정체

○ 위안화 결제 규모는 직접투자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결제는 2016년 들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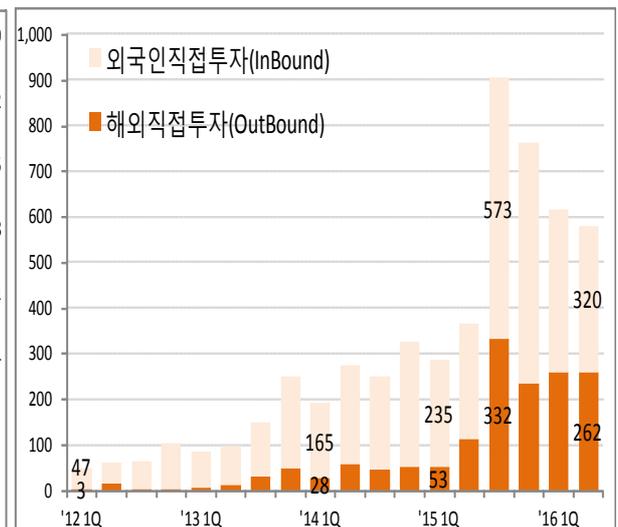
- 중국의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은 2015년 말부터 감소세를 보임
 -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는 2009년 4/4분기 36억 위안에서 2015년 3/4분기 2조 890억 위안으로 정점을 찍은 후 최근 감소세를 보임
 - 또, 중국의 수출입 총액 대비 무역결제 비중도 동기간 0.08%에서 32.2%로 급증했으나, 2016년 2/4분기 21.8%로 3분기 연속 감소

- 한편, 위안화 직접투자¹⁾는 여전히 증가세가 지속
 - 위안화 직접투자는 InBound의 경우 2012년 1/4분기 470억 위안에서 2016년 1/4분기 3,570억 위안으로 급증
 - Outbound도 동기준 30억 위안에서 2,610억 위안으로 증가세 지속
 - 이에 따라, 전체 위안화 직접투자(In+Out)는 동기준 500억 위안에서 5,820억 위안으로 증가

<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 추이 >
(십억 위안)



< 위안화 직접투자 결제 추이 >
(%) (십억 위안)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월평균 위안/달러 환율로 환산.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1) OutBound 기준, 위안화 직접투자 결제는 2011년 1월 중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

○ 한편, 위안화는 2015년 이후 세계 5대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하였으나, 수출입 결제에서 위안화 비중은 여전히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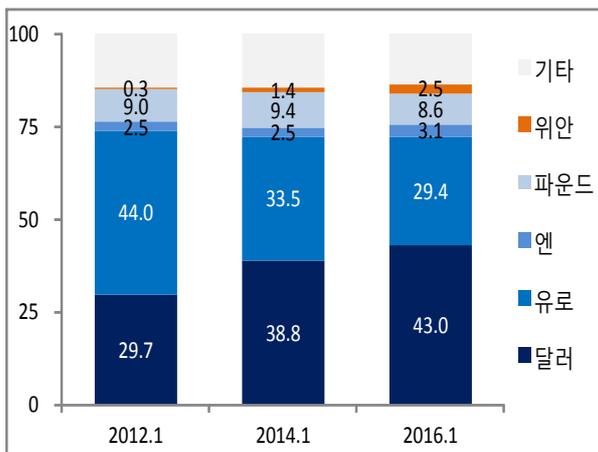
- 2015년 이후 위안화는 세계 5대 지급결제 통화로 부상

- SWIFT에 따르면, 위안화는 지난 2012년 1월 세계 지급결제 통화의 0.3%로 전체 글로벌 통화 중 20번째 수준에 불과
- 2016년 1월 현재, 동기준 위안화는 2.5%로 달러 43.0%, 유로화 29.4%, 파운드 8.6%, 엔화 3.1%에 이어 세계 5대 국제 지급결제 통화 입지 유지

- 수출입 결제에서 위안화의 비중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

- 일본의 엔화 국제화시기인 1980~1985년 사이 엔화를 통한 무역결제 비중은 평균 19.6%로 2009년~2013년까지 중국의 무역결제 비중 평균인 5.8%의 3배 이상²⁾
- 2011년 현재, 중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일본이 당시 수출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해 수입에만 치중

< 세계 주요통화의 지급결제 비중 >
(비중 %)



< 주요국가의 무역결제에서 자국통화 결제 비중 >
(비중 %)

구분	일본				중국		한국	
	'70	'80	'85	'12	'10	'11	'11	'14
수출	0.9	29.4	39.3	38.4	0.1	0.8	1.1	2.2
수입	0.3	2.4	7.3	22.9	0.9	10.8	3.7	3.9

자료 : SWIFT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주 1) SWIFT는 전세계 10,800개 금융사를 회원으로 금융통신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일종의 협회.
- 2) 무역 및 금융 등 총 결제 기준.

자료 : Hiroo Taguchi(1994), Kiyotaka Sato(1998), 일본 재무성, ECB, 한국은행, CEIC 등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주 : 2011년 중국은 1/4분기 기준, 한국은 2014년 4/4분기 기준.

2) 일본은 엔화국제화가 본격화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 수출입에서 미국,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등 선진국에 대한 엔화 결제가 평균 20~30%에 육박.

④ 자본시장 개방화 미흡

○ 최근 중국은 본토내 외국인의 위안화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 개방화 진전은 있지만, 자본시장 개방 측면에서 다른 통화국들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

- 중국 본토 내에서 외국인의 위안화 금융자산 보유가 지속 확대

- 외국기관 및 개인의 위안화 주식 및 채권 자산 보유액은 2013년 말 기준 각각 3,450억 위안, 3,990억 위안에서 2015년 말 각각 5,990억 위안, 8,520억 위안으로 3년 간 약 2배씩 증가
- 한편, 위안화 대출 및 예금 자산은 동기간 각각 5,310억 위안, 1조 6,050억 위안에서 각각 8,520억 위안, 1조 5,380억 위안으로 각각 1.6배, 1.0배 증가

- 하지만 중국의 자본개방도는 미약한 수준이 지속

- 자본개방도도 2015년 기준 미국 294.0%, 일본 282.0%, 한국 123.9% 등과 비교해 중국은 2015년 현재 약 68%에 불과
- 더욱이 중국은 2009~2015년 평균 자본개방도가 평균 64.2%로 동기간 일본 211.5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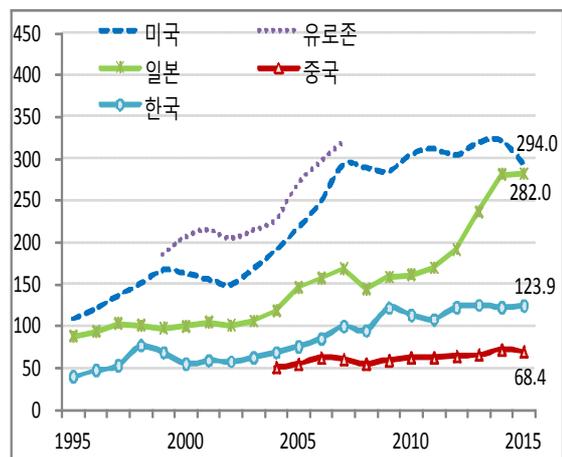
< 외국인의 중국 위안화 금융자산 보유액 >

(십억 위안)

구분	2013(A)	2014	2015(B)	B/A
주식	345	556	599	1.7
채권	399	672	852	2.1
대출	531	819	852	1.6
예금	1,605	2,372	1,538	1.0
전체	2,880	4,419	3,841	1.3

< 주요 통화국의 자본개방도 추이 >

(%)



자료 : CEIC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1) 중국 본토내 외국기관 및 개인 보유 자산 기준.

2) 대출은 중국기업이 외국기관에서 빌려온 자금 혹은 중국내 외국기업이 외국에 있는 모회사로부터 조달한 자금.

자료 : 중국외환관리국, 일본 재무성, 미국 재무성, Eurostat, 한국은행 등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 자본개방도 = (외환보유고 제외 대외자산+대외부채)/GDP.

⑤ 외환거래 확대 속 우려 상존

○ 최근 세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 거래가 미약하나마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브렉시트로 위안화 거래 센터 확대 등 역외 거래 환경 여건 약화가 우려

- 최근 전세계 외환시장에서의 위안화 거래가 소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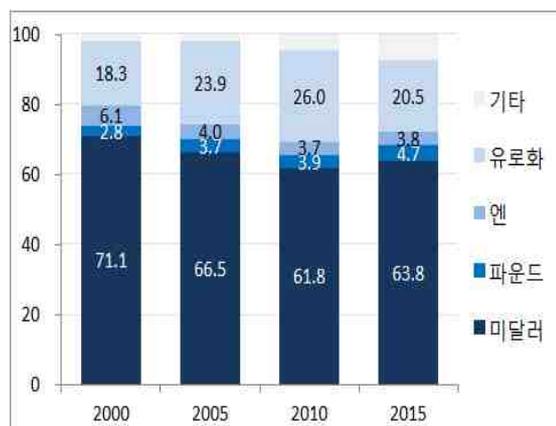
- 2016년 4월 현재, 세계 장외시장에서 위안화의 실물거래(Spot Transactions), 선물환(Outright forwards), 외환스왑(Foreign Exchange Swaps) 등 거래는 각각 680억 달러, 280억 달러, 860억 달러로 2013년보다 확대
- 한편, 세계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일일 평균 거래 비중은 2013년 2.2%에서 2016년 4.0%로 상승

- 다만, 최근 브렉시트로 위안화 역외거래센터 확대 등 위안화의 역외거래 여건 개선이 지연될 전망

- 위안화 역외거래 센터³⁾는 지난 2007년 홍콩을 시작으로 2013년 말 현재 영국,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들 지역 내 위안화 예금도 증가⁴⁾
- 다만, 2016년 6월 23일 결정된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여파로 유럽내 위안화 역외센터 구축 플랜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 확대

< 세계 장외시장에서 통화별 거래 현황 > < 글로벌 외환보유액 구성 통화 비중 >
(십억 달러) (비중 %)

구분	2013			2016		
	미달러	유로	위안	미달러	유로	위안
실물거래	1,691	754	34	1,387	520	68
선물환	588	178	28	600	178	28
외환스왑	2,030	766	40	2,165	807	86
통화스왑	50	18	1	88	22	3
FX옵션	293	70	17	218	64	18
합계	4,652	1,786	120	4,458	1,591	202



자료 : BIS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1) 매년 4월 일평균 기준.

2) 장외시장(OTC)이란 거래소시장 밖에서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을 의미.

자료 : COFER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잔액 기준.

3) 위안화 역외거래센터는 2004년 홍콩을 시작으로 2011년 영국, 2013년 싱가포르, 대만, 룩셈브루크, 프랑스 등에서 확대 개설되고 있으나, 최근 브렉시트로 EU 거점인 영국이 배제될 가능성이 커짐.

4) 세계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예금 잔액은 홍콩 8,510억 위안('15), 대만 3,000억 위안('14), 영국 440억 위안('15), 싱가포르 2,000억 위안('14.6), 룩셈브루크 640억 위안('13), 프랑스 200억 위안('13), 한국 601억 위안('15.9) 등으로 확대.

3. 중국, SDR 편입이 세계 및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 속도는 다소 느려지고 있으나, SDR 편입으로 위안화의 국제화 여건은 지속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SDR 편입으로 중국 경제는 자본시장 개방 등 금융시장 개선 효과 뿐 아니라,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은 위안화의 비축통화 기능 강화 뿐 아니라 브렉시트와 맞물려 글로벌 금융허브가 중화권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
 - 또, 실물부문에서는 직거래 시장 개설 확대로 위안화 무역결제의 국가범위 확대가 예상되고, 중국 경제의 對 세계 영향력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국내 경제는 위안화 투자에 따른 포트폴리오 다양성 확대, 對 중국 무역결제 비용 감소 등 긍정적 영향뿐 아니라, 對 중국 의존도 심화와 같은 우려도 상존
 - 금융부문은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증가, 위안화 포트폴리오 다양성 확대 등 국내 금융경쟁력 개선에 긍정적이거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도 예상
 - 실물은 무역결제에서 환헛지 비용 감소뿐 아니라 위안화 실물 직거래 증가로 서비스업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으로 보임

< 중국의 SDR 편입과 세계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4. 시사점

- 향후 중국 위안화가 SDR 편입으로 정체되었던 위안화 국제화 여건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적극적인 기회활용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 첫째, 역외 위안화 금융센터 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 구상 필요
 - 이번 위안화의 SDR 가입으로 향후 국내에서도 결제통화 및 투자 및 비축통화로서의 위안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역외 위안화 취급에 필요한 금융 인프라 구축 등 향후 역외 위안화 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플랜 마련 필요
 - 둘째, 위안화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국내 금융 산업 경쟁력 강화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 향후 브렉시트로 위안화 역외센터 플랜이 다소 수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안화 역외센터는 지속 확대되어 위안화 허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RQFII 쿼터 확대,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위안화 인프라 마련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위안화 채권 상품 개발도 지속 추진
 - 셋째, 한중간 금융 및 통상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시스템 재구축이 필요
 - 역내 금융 및 통상 분야에서 위안화 수요가 증가할 경우, 양국 간 환헷지 비용 감소로 한중간 경제 동조화 심화가 예상
 - 이에 따라 한·중 FTA 기회활용 전략을 국내에서 위안화 수요 증대를 감안한 금융 및 산업통상 전략 마련이 필요
 - 넷째, 원-위안 직거래에 따른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사전적으로 점검 필요
 - 올해 6월 상하이에서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개설되면서 사실상 한중간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조성
 - 이에 따른 원화의 상대적 지위 유지를 위해 가상적으로 원-위안 직거래에 따른 양국 간 외환시장의 충격 시뮬레이션을 사전적으로 검토 필요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용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정민 연구위원 (2072-6220, chungm@hri.co.kr)